

# 보도자료



보도분류	브리핑( ) 보도자료 제공( ✓ )
보도일시	<b>2022. 12. 28(수) 16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b>
작성과	서비스산업유치과
담당	과장 안도현, PM 정한별 (032-453-7394)

## 송도세브란스병원 착공...800병상 규모 오는 2026년 개원

의료 정주여건 개선 · 연세사이언스파크 연계 송도바이오클러스터 산학연병 구축 기대  
유정복 시장 “민선 6기 시민과 약속 지키게 돼 무척 기뻐...행정지원 아끼지않을 것”

- 송도세브란스병원이 착공돼 의료 정주여건 개선과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산·학·연·병 생태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송도국제도시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신축 병원 부지(송도동 송도과학로 85)에서 연세대 의료원 주최로 송도세브란스병원 착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.
-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,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, 정일영 국회의원을 비롯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, 허동수 연세대학교 이사장과 서승환 총장, 윤동섭 의료원장, 바이오 기업 및 지역 주민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, 송도 세브란스 병원의 착공을 축하했다.
-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8만5,800㎡ 병원 신축 부지에 지상 15층, 지하 3층, 800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6년 12월 개원이 목표다. 지난해 2월부터 병원 건축설계에 착수, 최근 건축 인허가를 마치고 이번에 착공식을 가졌다.

-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인공지능(AI)과 빅 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접목,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첨단 유전체 기반 의료 등을 실현해 미래 의료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정밀 의료병원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.
- 특히 송도 바이오 분야 연구기능을 갖춘 바이오 산업화 거점병원으로서 역할도 수행한다. 연세사이언스파크 사업과 송도지역에 집적한 굴지의 바이오 기업 및 인프라, 국내외 대학, 연구소, 제약사, 바이오 기업들과 연계해 산·학·연·병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, 바이오헬스 융합연구 등을 통해 K-바이오를 선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인천경제청은 송도세브란스병원이 향후 본격 운영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돼 인천이 △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 △바이오·의료 연구소 △인력양성 등 3박자를 두루 갖춘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윤동섭 의료원장은 “환자 중심의 경험기반 디자인 구현으로 미래의료 패러다임 선도하는 정밀의료병원 실현과 더불어 ‘바이오메카’ 송도에서 바이오 산업화 거점병원 역할을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- 유정복 인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“민선 6기 시절부터 반드시 송도세브란스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는데, 이렇게 지킬 수 있어 무척 기쁘다”며 “송도세브란스병원은 지역의 핵심 종합병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것이고, 바이오헬스벨리 구축을 위한 산학협동의 중심이 될 것이다.”라고 밝혔다. 그는 이어 “오는 2026년까지 병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연세대학교, 연세의료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6:00)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'인천시

인터넷방송'(<http://tv.incheon.go.kr/>) '포토인천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